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



▲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공동주최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묵은 '개 식용 논쟁'이 막을 내렸다.

9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의 취득·운반·보관, 판매와 알선 행위 금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 ●개 사육농장 운영 금지 및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 제출·이행 등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농장, 개도살·유통시설, 개고기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6개월 이내에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 값 비싼 동네에 병원 많다 ... 특목고 진학률도 3배

서울에서 집 값이 비싼 지역은 상대적으로싼 지역보다 병원과 의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중학생의 특목고 진학률도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한국국토연구원이 서울의 고가주택 밀집지와 저가주택 지역 1만명 당 병의원 수를 비교했더니 집 값이 비싼 곳이 25.5개로 저렴한 곳의 14.9개보다 70% 가량 많았다.

고가주택의 평균 공시지가는 약 13억원, 저렴한 주택 평균은 약 2억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지역은 의사 숫자 면에서도 고가주택 지역이 2배 넘게 많았다.

교육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집 값이 비싼 동



▲ 서울의 한 의원 밀집 건물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네의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률은 18.2%로 저가주택 지역 6%에 비해 3배 높았다.

인구 10만명 당 공공도서관 수는 고가주택 지역이 2.3개, 저가주택은 1.7개였고, 체육시설은 고가주택 8.1개, 저가주택 5.4개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의료와 교육면에서 격차가 가장 컸다며 저가 주택 지역에 공공 병원을 설립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겐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통 환경도 격차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가주택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지하철역 수는 3개인 반면, 저가 주택은 2.5개였고, 버스정류장은 고가 주택 지역이 4개, 저가 주택 지역은 3.4개로 나타났다.

편의점 '큰손'으로 떠오른 40대

편의점의 주 소비층이 20, 30대에서 40대로 옮겨가고 있다. 주 소비층 연령대가 높아지며 편의점업계의 상품기획(MD)과 영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CU의 전체 매출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8.4%로 30대(28.2%)와 20대(25.4%)를 넘어섰다. 이 편의점에서 40대가 연령대별 매출 비중 1위를 기록한 건 작년이 처음이다. 2022년엔 ●30대(28.6%) ●40대(26.4%) ●20대(25.8%), 2021년엔 ●20대(33.6%) ●30대(31.5%) ●40대(21.1%) 순이었다.

이 같은 변화는 편의점이 대형마트로 향하던 40대 수



▲ 한 소비자가 편의점 CU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BG파티널

요를 일부 흡수한 게 더 큰 원인이었다. 가족형 소비를 하는 40대는 코로나19 이전 대형마트의 주 소비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를 거치며 e커머스가 대형마트 자리를 대체했다.

대신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 주류와 소량의 제품을 손쉽게 살 때는 가까운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

최근 편의점업계가 주류와 신선식품 제품군을 대폭 늘린 것도 이 같은 흐름을 가속화했다. 여기에 40대는 2030에 비해 구매력이 커 1인당 평균 구매 단가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편의점업계는 40대를 겨냥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